

| 권두언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사회적 대화

시간이 쏠살같다. 봄부터 시작한 2020년 <계간 사회적 대화>가 여름, 가을호를 거쳐 어느덧 겨울호를 낸다. 통권 16호째다. 사회적 대화도 2020년 한 해를 회상하기보다 이미 두 달이나 지나버린 2021년을 맞이하기 바쁘다. 지난 2월 19일엔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배달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및 직무급 합의를 최종 의결하였다.

마무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한다. 그래서인지 2020년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1년 사회적 대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2021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사회적 대화에 주목한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지만 고용위기 시대일수록 더 많은 임무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엔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 일상생활로 한 발 더 나아가길 희망한다. 그러나 직장을 잃은 노동자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의 삶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되돌아 갈 수 없을 것 같다.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과 경제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듯이 노동시장의 정상화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2021년 사회적 대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코로나 이후 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면 좋을지도 대안이 필요하다. 각각의 주제들이 하나같이 어렵고 무겁지만 노사정이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다.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양극화, 새로운 고용관계



정흥준

계간 사회적 대화 편집위원장

규율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노사정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호는 2021년 사회적 대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에 초점을 두었다. 특별대담으로 최영기, 박태주 전 상임위원과 노사관계 전문가인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시간을 넘어,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단한 점이 돋보인다. 애정으로 사회적 대화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 점도 의미가 크다. 사회적 대화의 논단은 전국민고용보험과 플랫폼 노동에 주목하였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민고용보험의 실현을 위해 소득과약 시스템을 징수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소개하였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어렵게 합의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직무급 및 소상공인계층별위원회의 출범을 다루었다.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시선은 노사 모두에게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혹은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바라보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 절박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적 대화는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한 가닥 힘이며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21년에도 쉽 없이 매진해야 하는 이유이며 노사정이 미완성의 퍼즐조각이 담긴 각자의 보따리를 풀어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하는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계간 사회적 대화 겨울호>도 완성된 사회적 대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독자 여러분들께 제안한다.